

황무지였던 화재 예방 분야 개척



김희형

화보협회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는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화보협회 창립 당시 신입사원이 장가를 가서 그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하고 보니 이미 10년이 두번 지나갔다.

초동(草洞)의 자보빌딩 화협 설립 준비 위원회 기술반에서 협회가 필요로하는 전공 분야별 소요 인력 파악, 교육 준비, 점검보고서 양식 만들기, 안전 점검 규정과 점검 기기 선정 등 화협의 미래를 설계하던 때는 벌써 희미한 옛이야기가 되었다.

5.16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화재도 대형화하였는데, 1971년 크리스마스날 새벽 서울 충무로 입구의 대연각 호텔

에서 일어난 프로판 가스 화재는 136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를 낸 우리 나라 화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되었다. 당시 이 장면이 흑백 T.V로 여러 시간 생중계되었는데 창가에서 구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가 옥상에 피신한 사람들을 로프에 매달아 헬리콥터로 구출하는 장면 등은 참으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였는데, 이를 본 시민들이 달려와서 불속의 사람을 구출하겠다는 묘안이 백출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경각심을 더욱 새롭게 한 것은 1972년 2월 2일에 서울시 민회관에서 행사 도중 전기 화재 발생으로 사망 53명, 부상 76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함은 물론 이려니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과 신속한 복구가 절실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국민들의 생활도 단독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고 고체 연료 사용에다 전기용품 사용도 단순한 형태였기 때문에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연각호텔 및 시민회관 화재가 발생하자 전문적인 화재 예방 기관의 설립과 그 재원 마련, 운영 대책 등을 측근에게 검토 지시한 것이 화보협회 탄생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여러 면의 여건 변화가 방재제도의 확립과 전문 화재 예방 기관의 탄생을 이미 재촉하고 있었다.

1973년 2월 6일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



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 그 주업무를 안전 점검과 이에 대한 연구 계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보협회가 설립되어 1973년 7월 2일에 안전 점검을 개시하였고, 74년 1월의 윤성방적의 큰불을 계기로 화보협회와 내무부, 상공부 3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공단의 안전 점검도 실시하였다.

특수건물 대상 건수의 증가로 방재 시범 빌딩으로서의 사옥 건립 문제가 대두되어, 1977년 10월 11일에 방재 전시장까지 마련한 현 사옥의 준공을 보게 되었다.

안전 점검 결과는 건물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불량 사항을 개선토록 유도하였으며, 동시에 소방관서에 일괄 통보하여 그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화재 현장 조사 및 보험료 할인을 위한 소화 설비 할인 검사와 건물 소유주의 초청 간담회도 열었다.

관계 기관인 내무부에는 소방 점검 기기·헬리콥터·각종 소방차·소방 호스·방열복 등을 한국소방 점검공사에는 점검기기를 기증하고, 우수소방관 포상제도인 방화 안전봉사상(현 소방안전봉사상) 제정 등으로 소방 발전에 기여하였다.

소화 설비 개량 자금 대여나 건물 신축이나 개수시 관계자로부터의 기술자문 요청에 대한 서비스

협조 등 실로 많은 일을 하였다.

특수건물의 이재 사례 연구를 비롯한 많은 방재 연구 보고서 작성과 관계법 개정시 실무진으로 수차 참가한바 있다. 외국 화재 예방 기관들과의 빈번한 교류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최신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82년 11월에 발족한 방재시험소 설립 추진 본부는 1985년 5월에 방재시험연구소의 전신인 방재시험소를 출범시켰다.

방재시험소에서는 건축 내장재, 방화벽, 방화문 및 소방 기기 등 방화 제품의 성능 시험과 기술 자료의 수집 분석, 배포와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범국민적인 계몽 업무는 화재 예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화재 발생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부주의를 어떻게 감소시키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던 마스크를 통한 화보협회의 방화 사상 고취 홍보물을 보기힘든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인쇄 홍보물도 유사 기관 것보다 양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

대중상까지 수상한 위험한 행복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영화는 국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불조심 웅변대회, 불조심 포스터 및 화재 현장 사진 전시회, 여성 수필 및 수기 현상모집 등과 불조심 어린이단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사옥 준공 당시 만들었던 방재

전시장은 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금은 폐쇄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화보협회는 우리 나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커다란 업적을 쌓았다. 그중에서 화보협회가 출발한 이래 제일 큰 자랑이라면 필자는 그동안 화보에서 자란 방재 분야의 쟁쟁한 인재들을 들 수 있다. 소방기술사 1호 배출부터 시작된 협회 출신의 전문가들이 현재 이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업계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값지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황무지였던 우리 나라의 화재 예방 분야를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개척하였고, 또 오늘날 화보협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도 굳게 정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화보협회만이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종합 방재 기관이란 자부심을 내세우던 때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필자만의 지나친 기우일까?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경쟁자도 생겨났고 주위의 여건도 많이 변하고 있다.

넓은 식견을 갖고 급속하게 변하는 주위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의 앞날에 위협을 주는 결정적 요소들은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각오와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이다. ☻